

# “광주시, 인구감소 따른 주택·도시 인프라 공급방식 재검토”

김동찬 시의원 “2030년까지 공급이 수요보다 최대 13만5017호 초과”  
김나운 시의원 “각종 소송 대응 부족 시민 혈세 낭비…대책 마련해야”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과 도시 인프라 등의 공급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10년간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 김동찬(민주·북구 5)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우려와 함께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광주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은 최소 12만5000호에서 최대 18만7000호로 추정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군 공방 이전 사업,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선운 2지구, 첨단 3지구 등을 비롯한 재건축·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주택 수요는 5만2382호~6만3948호 가량 되지만, 주택 공급물량은 최소 12만5000호에서 18만7000호로 추정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최대 13만5017호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은 올해 1월 기준 107% 수준이며, 2025년까지 119.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광주지역 주택 유형중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로, 전국 평균인 5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아파트 등 주택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건설 경기 하락, 금융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향후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거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향후 주택 공급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나운(민주·북구

6)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담당관실과 각 부서에 소송업무에 대한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문서 위변조 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거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했다.  
광주시는 이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납부를 미루고 있는 화물차 업계 21개 법인 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곳의 소송이 확정되었다”면서 “하지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전체 101억원 가운데 90억원 가량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소송가액만 70억원을 웃돌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공사가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김 의원은 시기적절한 소송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선제적 법무TF팀 구성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IT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 전남도, 순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디지털뉴딜 탄력

NHN엔터프라이즈와 3000억 투자 협약…IT 인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순천에 3000억원 규모의 NHN엔터프라이즈(주)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유치, 디지털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NHN엔터프라이즈(주), 순천시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스마트 IT산업밸리 구축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훈 NHN엔터프라이즈(주)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 하유인 순천시장, 임종기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NHN엔터프라이즈는 순천에 3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지역 법인 설립 ▲2022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 IT산업밸리 구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을 추진한다. 200명의 고용창

출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확대에 대응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전남도는 순천에 조성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기반의 IT산업을 활성화해 IT 인재 양성, 연관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로부터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아 2025년까지 이뤄지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이전 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서 전남형 뉴딜 전략에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데이터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약으로 전남형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할 모멘텀을 마련했다.  
김동훈 대표는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 안전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남도, 순천시와 적극 협력해 경쟁력을 갖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 전남의 데이터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NHN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남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순천에 조성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ICT기업, 글로벌 R&D기업이 들어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글로벌 ICT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N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전문기업이다.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데이터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대표 IT기업 NHN(주)이 설립한 자회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효천지구 등 3곳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

15억 들여 6월까지

광주시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속 미세먼지를 차단·흡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숲 조성지는 남구 효천 1지구 완충녹지와 광산구 진곡, 평동산단 주변 녹지 등 3곳 1.5ha다. 오는 6월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온역역을 시작해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숲에는 사계절 미세먼지 차단 기능과 함께 경관도 고려해 소나무, 가시나무, 아왜나무 등 상록

수목과 이팝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등 잎이 커 미세먼지를 차단·흡수 효과가 높은 낙엽 수목 등 3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신재욱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 주거지역 유입 차단, 도심에 깨끗한 공기 공급은 물론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미기후 조절 기능, 소음감소 등 환경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해 폐기물처리장 주변, 생활권 내 도로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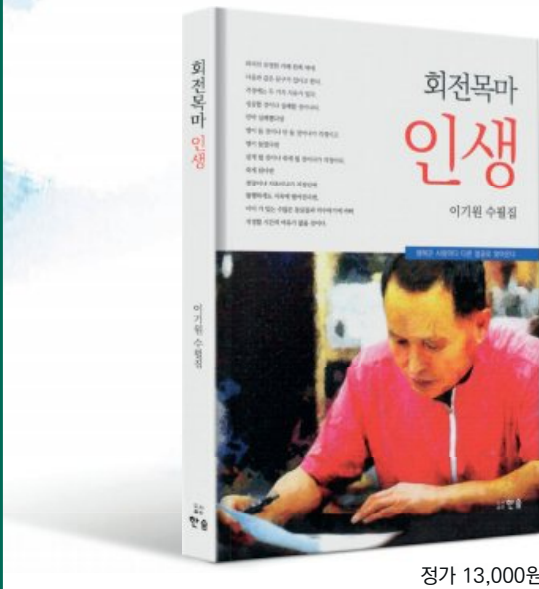
## 전남도, 코로나 위기 마이스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전시·컨벤션 업계 보호·경쟁력 확보  
‘인센티브 지원 제도’ 추진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MICE) 업계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전남 맞춤형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마련해 추진한다.  
전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난해 코로나마이스 행사 70%가 취소됨에 따라 올해부터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하이브리드 행사는 전남을 배경으로 현장(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마이스 행사에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가 동시 접속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로 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정과 휴식 이미지 전남을 강조한 후 마이스 시설을 특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후 마이스 시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소규모형 시설’로 기업회의·연수, 워크숍·세미나 등 각종 소모임 등에 걸맞은 시설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변화된 마이스 산업 시장을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확대된 인센티브 지원정책으로 마이스 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국내외 협·학회, 정부, 조직위원회, 기업 등 마이스를 자체 및 공동 주최·주관하는 단체 또는 위임을 받은 국제회의 기획업과 여행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https://www.jeonnam.go.kr), 전남관광재단(http://ijnio.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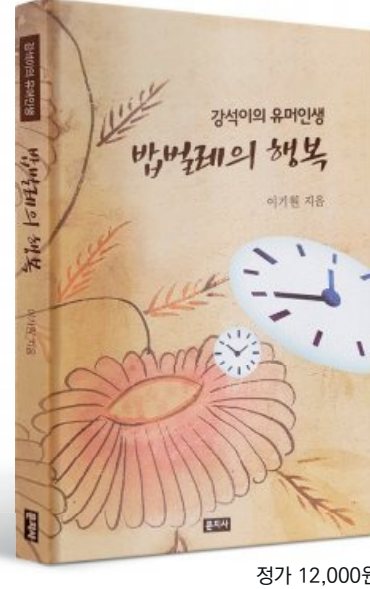


정가 13,000원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2,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뿌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